

光背의 直徑과 蓮華天井石의 內徑과는 같은 크기인데 이는 本尊台座의 仰蓮上石底徑과 一致하는 것이다. 또 이들의 直徑은 窟直徑의 三分之一에 해당하는 것이다.

五、結言

紙面 때문에 所論을 축소 혹은 省略하여서 石窟庵을 周知하고 있는 사람 말고는 무슨 이야기인지 弄잡을 수 없게 되었다. 또 米田氏의 所說을 修正한다는 의미에서는 數値를 提示하여 米田氏와의 數値를 比較하여야 옳았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도 못하였다. 단지 지금까지의 解析試圖가 옳은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再檢討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고 싶었다.

要컨대 數値에 열매어 정말 石窟庵을 잃고만 結果를 저질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數의 實測에 따르면 前室과 窟과는 使用尺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樣式 혹은 技法의 詳考가 後日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 論考를 위하여는 金東賢氏의 敎示가 컸다.

註 ① 柳宗悅『石佛의 彫刻에 就て』『柳宗悅選集』第四所載

② 實測圖는 原圖가 國立博物館에 所藏됨. 『長鬚郡石窟庵實測圖』(四枚)라 表題하다. 寫眞은 原版이 各處에 散在되어 있음. 一九六一年度 補修工事時 이러한 原版을 調査 印畫하여 『工事報告書』(未刊) 編輯用 資料로 採擇한 바 있다.

③ 米田美代治『慶州石窟庵의 造營計劃』(考古學) 第一〇卷三號) 『朝鮮上代建築の研究』昭和九年刊

④ 이 石塔은 石窟庵南崗에 位置한 三層石塔을 말하는 것이다. 米田氏는 이 塔을 石窟과 同代(景德王代)로 보는 모양이나 筆者는 石窟보다 年代가 뒤떨어지는 石塔으로 推定하여 使用尺뿐만 아니라 樣式에 있어서도 相互의 比較는 成立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⑤ 『石窟庵補修工事報告書』(未刊)에 詳論되었으므로 여기서는 紙面關係도 있고하여 省略하나 序言에서 略記한 點을 想起하여 주기를 바란다.

谷城、石谷、竹谷의 石佛三軀

(全南谷城郡佛蹟二)

鄭 永 鎬

四、竹山里石佛立像

現在 石谷面 竹山里①二六七番地 崔圭氏(三〇才)宅 前庭의 草葺小屋內에 奉安되어 있다. 氏의 말에 依하면 이 洞里가 생기기 오래 前부터 이 자리에 있어 露天에 放置되고 頭部가 折損되어 있던 것을 近年에 「세멘트」로 頸部를 附着補強한 것이며 小屋도 崔氏家에서 마련한 것이 라한다. 四枚의 地台石上에 複葉八瓣의 圓形伏蓮石이 놓이고 그 위에 如來立像이 東向해 있는데 佛像과 台石의 石質이 틀리는 點②과 서로의 彫刻手法 및 樣式에 差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原位置인지 또는 本然의 台石인지는 疑問이며 注目된다. 이 石佛에 對하여는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若干의 記錄이 보일 뿐이다. 全高二六七cm로서 素髮의 頭頂에는 肉髻가 있었으나 破損되었고 白毫는 없다. 兩耳는 짧으며 相好는 圓滿한 편인데 鼻部의 磨損을 「시멘트」로 補強하여 印象을 그릇졌음은 遺憾된 일이다. 通肩한 法衣는 兩腕에 걸쳐 양쪽으로 흘러 내렸으며 臍前부터 兩膝까지의 衣紋은 流麗한 圓弧를 그렸다. 膝下部에는 裙衣의 下端이 발등까지 주름잡히면서 내려졌고 兩足은 露出되었 으며 足座는 角形(長方形)으로서 아무런 彫飾도 없다. 兩手는 胸前에 들어 모은 것 같으나 衣紋으로 인하여 手印을 把握하기 어렵다. 相好나 各部 및 衣紋의 彫刻手法으로 보아 年代는 高麗中葉으로 推定되었는데 兩脚의 側面과 裙衣下端의 衣紋等은 注目되는 樣式이라 할 것이다. 實測 值는 像高一三六 肩幅七六 台座高一三一 台座下面徑一一五 cm. 頭高一五一 胸幅四七 足座高一三一 上面徑八二이다.

五、石谷里石佛立像

石谷面 石谷中學校 西方二百m 되는 畚중에 있는데 附近에 瓦片이 散亂

하고 또礎石이 몇개 散在한點으로 보아 이곳에는佛像을奉祠하기爲한小堂宇가 있었던것같다. 原位置로서이石佛에對하여는「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若干의記錄과谷城邑誌^③에보일뿐이다. 現在膝下部가埋沒되어있어台座의具備如否 또는足部の樣式等調査가不可能한것이遺憾이다. 佛像은如來像인데鐵分이많은花崗石으로磨滅이甚하여各部의彫刻이明瞭치않다. 큰직한頭光이남아있고立像의側面과背面을잘다들지않아서마치板石에陽刻한것같이보인다. 素髮의頭頂에는肉髻가있으며相好의各部彫刻에磨損이있으나白毫와三道는 뚜렷하다. 通肩한法衣는글게衣紋을그리며(太彫)양쪽팔에걸쳐옆으로퍼졌으며다른各部의彫刻(細彫)은分明치않다. 手法은兩手を臍前까지들은것같으나어떠한形態인지分間키어렵다. 이렇듯頭光만을彫刻한같은例로는바로隣接한全北南原郡周生面池塘里의石佛立像이있는데이들은同系의石佛로서各部의樣式이나彫刻手法으로보아高麗中葉의造成으로推定된다. 實測値는

肩幅一〇三 頭光幅一一〇
胸幅五六 厚三三〇이다.
六、堂洞里石佛坐像

現在竹谷面堂洞里二區一〇一番地朴泰安氏(四四才)宅 옆空地에安置되어있으나朴氏의말에依하면이곳은原位置가아니며二十餘年前에



이洞里的 뒷편「한절골」에서某人士가任意로 옮겨리던것을이部落사람들이빼앗아이곳으로移安한것이라고한다.「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보면「竹谷面蓮花里에華藏寺址가있고그곳

에石佛坐像이存在한다」고하였는데現地踏査結果그寺址에는瓦片과石築만이散亂할뿐石佛은堂洞里에 옮겨갔다고洞民들이말하고있으니前記朴氏가말하는「한절골」의位置나그移搬經緯로보아이坐像의原位置는蓮花里임이틀림없다. 그러나이佛像은現在堂洞里에保存되고있으며名稱은그대로「堂洞里石佛坐像」이라하고자한다. 이佛像은지난一月에調査하였는데그때는台座의中台(竿柱石)의下部까지埋沒되어있어서約一時間의下台發掘作業을하고난뒤調査하였음을附言한다.

移安한佛像이어서地台石은없으나上,中,下台의座台는具備하고있다. 下台는複葉八瓣의伏蓮圓形台石으로서上面에一段의角形과임으로八角中台를받고있는데中台各面에는隅柱나다른彫飾이없다. 上台는圓形이며單葉重瓣의仰蓮이八瓣인데瓣內엔아무런彫飾도없다. 佛像은如來像으로서結跏趺座한降魔印을하였는데頸部에補強「세멘트」가보이며左手에磨損이있다. 素髮의頭頂에는肉髻가있으며兩眉間의白毫孔은유난히큰편이라하겠다.(徑三·五cm)兩耳는짧고三道가있으며相好는圓滿한것같은데兩眼과鼻部口唇等이磨損으로因하여뚜렷치않음은遺憾된일이다. 法衣는通肩으로胸前에서圓弧를그리면서兩腕에걸쳐부드럽게흘러兩膝을덮었다. 무릎이높고넓은편이어서鈍重한감이있으나座台의蓮瓣手法과坐像各部의彫刻으로보아年代는高麗中葉以後로는降下되지않는것으로推定된다. 實測値는(cm)……

坐像高一〇〇 頭高三五 肩幅五四 膝高二六·五
座台高一〇〇〇 胸幅三二 膝幅八三
上台上徑一〇八 中台高四五 下台上徑五三
" 下徑一〇七 " 一邊長二一·五 " 下徑九二
" 高二九 " 高一二六·五

註 ① 石谷市場에서西北쪽으로約三km되는部落으로서이마을에서는竹材를產出하고있어洞里名도竹山里라하였다는데바石佛은「대나무밭」뒷쪽에位置한다.
② 四枚의地台石과伏蓮台石은花崗石으로石質이같으나立像만은「썩을」이라하는異質이다.
③ ……彌勒在縣南五十里長三丈俗傳道說立此以鎮地脈……